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와 비영리단체 지원

사회복지 지원 '나눔과꿈' 공모 3년간 최대 3억원 사업비 지원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국내 최대 사회복지 사업을 함께할 비영리 단체를 찾는다.

양측은 오는 31일까지 공모사업 '나눔과꿈'에 참여할 비영리단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나눔과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 공모사업이다. 2016년 처음 시작해 4년간 207개의 비영리 단체에 총 400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신청 분야는 복지, 교육자립,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열린 성과평가 연구 및 선정기관 발표회.

/사랑의 열매

이와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특성에 따라 1년간 최대 1억원부터 3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창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꿈 사업'과 함

께,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진행 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나눔 사업'으로도 구분된다.

일정은 9월 서류심사, 10월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최종 선정된 비영리단체를 발표한다. 내년 1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된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AI 지나친 환상은 금물



기지수첩

채윤정 (산업부)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가 가장 큰 트렌드가 되면서 인공지능(AI) 챗봇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고객센터에서 AI는 이제 선택을 넘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까지 발전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지난해 AI 챗봇들을 테스트해 보다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원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는 질문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최근 챗봇업체 대표들을 만나면 이전에는 챗봇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성능이 크게 개선됐는지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이들의 거의 공통적인 대답은 "AI가 사람처럼 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아온 AI는 현실과 괴리가 큰데, 많은 사람들이 AI에 지나친 환상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AI 챗봇은 사람이 100번 이상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대신해줄 수 있어 사람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했다. 대학 행정실에는 학사 정보 문의

가 끊이지 않고, 병원에는 예약 문의가 계속 오고, 수백번 반복되는 말을 AI가 대신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사람이 맡아 아직은 고객센터에서 AI와 사람이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I 1세대'로 잘 알려진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는 강연에서 "AI에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현재 수준인 '내로우 AI'도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다.

물론 최근 1~2년 만에 AI의 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시리', '빅스비' 등이 기계음을 내던 게 당연했지만 AI어나운사·AI터빙은 정말 사람이 아닌 AI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잘 하는 AI', 영화 'HER' 속 '사만다'는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일을 잘 하는 AI만으로도 각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이 가능해지고 있다. 지금은 AI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실망하기보다 어떤 분야에 AI를 적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뒤져 있는 AI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민해야 한다.

/echo@

LG하우시스, 임직원 가족과 '행복한 공간 만들기'

LG하우시스는 지난 4일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장락분교에서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비영리국제단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한 이번 '행복한 공간 만들기' 행사에는 LG하우시스 임직원과 자녀 30여명이 참여해 장락분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용할 DIY 사물함을 제작하고 학교 외벽에 벽화를 그리

는 등 환경개선 활동을 했다.

이에 앞서 LG하우시스는 지난달 말 고단열 창호 및 친환경 바닥재 등 자재를 지원해 노후된 학교 도서관 시설 개보수 공사를 미리 완료, 장락분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 보다 쾌적해진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창호, 바닥재, 벽지 등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자재를 활용



'행복한 공간 만들기'에 참여한 LG하우시스 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해 낙후된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재능 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운세 7월 6일 (음 5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기며 살자. **48년생**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실행. **60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한가하게 뱃놀이. **72년생**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84년생** 직장에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 37년생** 늘 먹던 밥도 신물이 난다. **49년생** 썩지 않으려면 물은 흘러 보내야 한다. **61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73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85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서 위기를 탈출하자.
- 38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50년생**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62년생**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7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매사에 자중하라. **86년생** 자기중심으로부터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 3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이른다. **51년생**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63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풀린다. **75년생** 확실한 의사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87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 40년생**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잘 풀린다. **52년생** 나의 잦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64년생** 호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7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쉬지 말고 노력. **88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
- 41년생** 힘든 일은 자식의 도움으로 해결. **5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마라. **65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 **77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9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결국 성공으로 측정.
- 4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54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한다. **66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78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90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 43년생** 가진 돈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지출. **55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 **67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79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91년생** 성공한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안전.
- 44년생** 익숙한 일도 신중하게 대하라. **56년생** 본심수가 있으니 휴대폰을 잘 챙겨라. **68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80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 **92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자.
- 45년생**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다. **57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69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81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득을 가져온다. **93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46년생** 진실은 밝혀려 들수록 때가 묻는다. **58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이다. **70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8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94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 47년생** 슬픔도 이제 지나간다. **59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가려서 하라. **71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83년생** 우물에서 송충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9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김상회의 4季

역으로 보는 미래상

우선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서로는 정감록(鄭鑑錄)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 외 남사고록(南師古錄)을 비롯하여 토정비결과 송하비결 등 여러 예언서들이 작금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이 등장할 때마다 화제가 된다.

조선의 근대사에 등장하는 김일부선생의 정역(正易)은 아직도 그 해석이 난해하여 대중적이지 못한 것이 유감이나 역시 근대에 들어 주역에 달통하신 것으로 탄핵대중사가 칭찬하신 바에 의하면 그 가치가 심대하다고 여겨진다.

신비하고 신비한 위의 여러 예언서도 있으며 필자는 스승이셨던 단원선생님과 이석영선생과의 역학인연 또한 높게 친다. 그 분들 생전에 더 치열하게 공부하지 못함이 한스러울 뿐이다.

아직도 뇌리에 분명한 건, 앞으로 이십 년 안에 큰 혼란이 오는데, 할 수 있는 건 역(易)공부 밖에 없으니 부지런히 공부하란 말씀이셨다. 그리고 자네는 명을 길게 하려면 역학공부가 그 길이니 부디 매진하라는 말씀을 받은 "예." 하고 받은 귓등으로 들은 것이다.

필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어렵고 혼란스런 시대를 당하여 역학으로 그 길을 헤쳐 나가고 세상에 힘이 되게 하란 말씀인 것을 근간해야 더욱 처절히 실감한다. 더 하나 더하신 말씀은, 선한 사람을 근처에 두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인즉 이해를 따지는 사람을 경계하란 뜻으로 해석한다.

다가 올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은 내적으로는 마음공부요, 외적으로는 세상을 읽는 지도를 공부함이니 그것은 바로 역의 길이다. 우주의 질서와 변화하는 이치의 틀에서 각자의 미래를 읽는 지도, 지도가 있으면 처음 가는 길도 수월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3	9		5		1		
	5	7	9	1		2	
			8		7		
6			7			8	
5						1	3
	4		9				
		6		9			
9			2	3	5	6	
	8		6		9		4

6	B	A		8		4	7		
9	8					1	A		
5		3		B			6	2	
2	A	C			5	7		3	
7	8				9			6	
B				2	1	C		A	
	1		6	7	3			4	
4			A				8	1	
9	7		1				C	B	2
5	6			4		A			3
C	2							7	6
	4	B			7		8	9	5

7	E	6	L	1	9	S	8	Z
L	9	S	E	8	Z	7	1	6
8	Z	1	6	S	7	9	E	L
E	L	9	8	6	S	Z	7	1
1	6	7	9	E	8	L	S	
S	8	Z	7	L	1	E	6	9
6	S	L	Z	E	8	1	9	7
Z	7	E	1	9	6	L	S	8
9	1	8	S	7	L	6	Z	E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4호